

광주 유일 공항버스 ‘1000번’ 없어지나

업체 “적자로 더 이상 못 버텨”
내년 1월부터 6개월 휴업
광주시 36번 버스 증편 검토

오랜 기간 광주 도심과 광주공항을 이어 주던 공항버스 ‘1000번’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광역 자치단체에 공항버스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버스 휴업을 막거나 대체 공항버스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 (유)광주관광 등에 따르면 공항버스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휴업한다. 공항버스는 매일 버스 13대가 15~30분 간격으로 승객을 운송중이다.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광주관광 측은 최근 광주시에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로 폐업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광주시는 1년 이내 휴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일단 6개월간 휴업한 뒤, 요금인상 등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업체도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002년부터 운영된 공항버스는 광주송정역(2015년부터 경유)~광주공항~상무지구(광주시청)~광천터미널~광천1교~유동삼거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동구청~산수오거리~두암타운입구~장원초교~무등산관광호텔 구간을 운행하면서 광주 시민은 물론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발 역할을 해왔다.

공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광산구에서 서구·북구·동구 등 제1순환로와 간선도로를 지나는데다, 좌석버스의 편리성 때문에 출퇴근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환승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일반 시내버스보다 좌석이 넓은 리무진버스인 데도, 요금이 성인 기준 1400원으로 시내버스와 동일한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1000번 버스와 비슷한 좌석버스인 02번 버스의 요금은 1800원이다.

광주관광측은 광주시의 시내버스 개편에 따른 승객분산 등으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2년 전부터는 적자운영 중이라며 광주시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달 기준 총 이용객수가 최소 4700~5000명 이상이 돼야 수익이 생기는데, 현재는 3000명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유류비 등 운영비만 한달기준 1억4000만~1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수익은 1억~1억1000만원 수준이어서 매달 4000만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3년에 한번씩 면허를 갱신하는 공항버스는 마을버스와 마찬가지로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2001년 10월 ‘공항버스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 공고’ 당시 공고문에 ‘적자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보조금 지급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금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일단 공항버스 휴업에 따라 금호 36번을 대체 노선으로 보고 증차할 계획이지만, 공항 내부까지는 경유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관광 관계자는 “지난달에만 광주시를 세차례 방문해 유류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휴업기간 광주관광측과 요금인상을 포함한 적자 운영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폐업까지 이어진다면 운영업체 모집 재공고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000번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운영업체를 재모집한다고 해 적자문제가 해결 되겠느냐”면서 “공항 이용객과 시민이 불편을 겪기 전에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동구 계림오거리 인근에 심어진 은행나무에 열매수 거용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다. 동구는 은행 열매 악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동구 내 모든 은행나무 가로수에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구 그물망으로 은행나무 열매 악취 해소

계림동 일대 4그루 시범설치

광주시 동구가 광주에선 처음으로 은행나무 열매 악취해소를 위한 그물망을 시범 설치했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고질적인 민원인 은행나무 열매 악취해결을 위해 최근 계림오거리 등 은행나무 4그루에 대형그물망을 설치했다. 나무기둥에 그물망을 달아 은행열매가 그물망 안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매년 10월께 은행나무 열매 떨어기, 주민대상 은행나무 열매 채취기간 운영 등 은행나무 열매 관련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낙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동구의 설명이다.

동구는 올해 시범 설치한 4그루를 시작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 열매를 맺는 암은행나무 전체에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은행열매로 인한 악취·청소 문제 등 고질적인 생활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구 가로수는 총 9043그루로 이중 은행나무는 4678그루다.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1000그루(전체 11%)에 달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정부 1년 하향 추진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토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

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24

달뜨기 15:32
달지기 04:26

숨막히는 겨울날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 일부 지역에 비 내리겠다.

광주	흐린뒤 맑음	6/13	보성	흐린뒤 맑음	4/13
목포	흐린뒤 맑음	8/12	순천	흐린뒤 맑음	5/14
여수	비온뒤 갠	8/12	영광	흐린뒤 맑음	5/12
나주	흐린뒤 맑음	4/13	진도	비온뒤 갠	8/13
완도	비온뒤 갠	9/14	전주	구름맑음	5/12
구례	흐린뒤 맑음	3/13	군산	구름맑음	4/11
강진	흐린뒤 맑음	5/13	남원	구름맑음	3/11
해남	비온뒤 갠	5/13	흑산도	흐린뒤 맑음	9/12
장성	흐린뒤 맑음	4/1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생황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나쁨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09 17:50	12:15 --:--
여수	00:49 13:20	07:21 19:27

◇주간 날씨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4/15	5/11	2/8	-2/6	-2/6	-3/5	-4/4

광주 중앙·송정도서관 국경일·공휴일에도 문 연다

광주중앙도서관·송정도서관·금호평생교육관 등 광주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3곳이 내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에도 문을 연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도서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자 학습실을 국경일·공휴일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추가 개방일에는 책을 빌릴 수 있는 자료실 사용은 제한되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가져와 읽을 수 있는 학습실만 이용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학습실 개방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

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국경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재 광주시교육청 공공도서관 평균 개관일은 연 325일로 전국 평균 개관일(2017년 기준, 국가도서관 통계 자료) 299일보다 26일 더 많다. 내년부터는 14일이 추가로 늘어 연간 339일 가량 개방하게 된다.

휴관일은 정기휴관일(중앙·송정도서관 2·4주차 월요일, 금호 1·3주차 월요일)과 설·추석명절 당일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경찰 범죄 제보 118명에 3346만원 포상금 지급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검거보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범죄를 제보한 주민 118명에게 총 3346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를 도운 사람이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보 입은 시민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안전한 지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범죄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천혜의 자연경관과
사계절 내내 풍성한
볼거리가 넘치는 도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과
백제가요 정음사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국책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첨단과학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정읍!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읍이
대한민국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중심에 **첨단산업**과 **토탈관광**, 그리고 **에코축산**이 있습니다.

100년 공간을 책임질 첨단과학기술 선진도시, 정읍!
감동 넘치는 토탈문화관광도시, 정읍!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에코축산도시, 정읍!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희망 정읍입니다!**

정읍시
JEONGEUP-SI

첨단 산업

토탈 관광

에코 축산